

# 1. 쿠다라(百濟) 야마토(倭)

## (1) 새로운 역사의 창조

660년 9월 5일. 야마토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월에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군신들을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다. 곧이어 속보가 들어 왔다. 복신이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다시 군대를 정비 하니, 당군도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월. 복신은 야마토 조정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동시에, 당시 야마토에 와있던 왕자 풍장을 새 임금으로 모시려하니 본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661년 1월 6일. 사이메이 여왕은 백제 구원 작전을 진두에서 지휘하기 위해 북 큐우슈우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7월 24일. 북 큐우슈우의 아사쿠라 궁에서 백제 부흥 작전을 손수 지휘하던 사이메이 여왕이 서거했다. 11월 7일. 태자(텐지)는 여왕의 유해를 아스카로 모시고 돌아와 장사를 지냈다. 662년 7월. 태자는 소복을 입고, 큐우슈우의 나가쓰 궁으로 거처를 옮겨, 바다 건너의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663년 3월. 태자는 2만7천명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게 했다. 8월 28일. 백제를 구원하러 온 야마토 군사 1만 여명이 백촌강에서 궤멸했다. 663년 9월 7일. 주유성이 당군에게 함락되었다. 풍장은 몇 사람만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 고구려로 달아났다.

668년 1월 3일. 그 동안 왕위 계승 절차도 밟지 못하고, 소복을 한 채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사태를 대처해 오던 태자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 텐지 왕이다.

668년 10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671년 12월 3일. 텐지 왕이 서거 했다.

일찍이 텐지의 동생은 형님의 둘째 딸(후에 지토오 여왕)을 맞이해서 처로 삼았었다. 그는 소위 "진신의 난"을 일으켜, 673년 2월 27일에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텐무 왕이다. 681년 3월 17일. 텐무는 6인의 왕자와 6인의 대신들에게 역사 편찬 작업을 명한다.

여기까지가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발췌한 것이다.

670년 12월조의 신라본기는 "왜국"이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었다고 기록을 했다. 텐지 왕이 서거하기 바로 1년 전 일이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당나라의 힘을 빌린 속적 신라에게 차례로 정복되자, 일본 땅에서의 야마토 정권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극도에 달했다. 텐무(673-686년)는, 백제와 절연된 토착 정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identity*)을 확립하기 위해, [681년 3월 17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명했다. 고사기는 텐무가 상고의 역사를 깊이 탐구해서 선대의 일들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686년에 텐무가 서거하기 이전 어느 날, 드디어 새로 만든 역사의 윤곽이 잡히었고, 천재적인 기억력을 보유한 28세의 히에다 아레가 그 내용을 암기 했다.

당시 텐무가 느꼈던 위기감과 새 역사 창조의 필요성은 고사기 서문에 잘 요약 되어있다: "여러 씨족들의 본가가 보관하고 있는 우리 역사(帝紀及本辭)의 기록 내용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이제 당장 그 틀린 내용들을 고치지 않으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국가의 기틀(邦家之經緯)과 왕실의 기반(王化之鴻基)이 상실 될 것이다. 이제 이들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 후세에 전하러 한다.”

661년에 텐지의 넷째 딸로 태어난 겐메이 여왕(707-715년)은 텐무에게는 조카딸이 되며 동시에 며느리였다. 이 겐메이는, 711년 9월 18일, 자신의 언니의 남편이며 시아버지인 텐무가 암기시켜 놓은 새 역사(勅語舊辭)를 글로서 기록(撰錄)을 하도록 야스마로(安萬侶)에게 명령했다.

야스마로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712년 1월 28일에, 히에다 아레의 구술을 받아 기록한 내용을 겐메이 여왕에게 바쳤다. 이것이 바로, 년월일(年月日)도 없이, 새로 만들어진 역사의 큰 줄거리만을 서술한 고사기라는 것이다.

야마토 조정은 곧이어, 텐무의 아들인 토네리 친왕과 야스마로의 공동책임 하에, 이 고사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년월일에 따라 기록을 하는) 편년체 형식의 니혼기(日本紀)를 편찬시켰다. 겐메이의 딸인 겐쇼오(715-724년)여왕의 재위 6년째인 720년에 완성된 이 일본기는 후세에 일본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비록 서문도 없고,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전(列傳)도 없고, 또 제도, 관습, 지리 등 각종 정보를 서술하는 지(志)도 없지만, 최소한 본문만은 정식 사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야스마로는 723년에 죽었다.

## (2) 야마토 왕국의 창건 시점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야마토 왕국이 4세기 말경에 오오진(應神)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어쩌서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이 야마토 왕국을 오오진 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제 아주 잘 알려진 학설의 내용을 소개 해 본다.

20세기 초, 와세다 대학의 쯔다 소오끼치(津田左右吉):

1873-1961년) 교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오오진 이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야마토 왕족을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지배자로 만들기 위해, 모두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井上 외, 1984, 271-273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음.)

쫄다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를 보자.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시조 진무 이후 신공 왕후의 남편이라는 추우아이 왕까지의 (즉 2대부터 14대 왕까지의) 13명의 왕들은, 단지 죽은 다음에 만들어서 부여된 시호(和風諡號)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명칭들을 검토 해 보면, 전혀 각자의 고유성이 없다. 반면, 15대 왕이라는 오오진 부터는, 각기 왕자 때부터 실제로 사용된 특유한 이름을 그대로 왕의 시호로 기록했다. 오오진의 왕자 때 이름은 “호무다”이고 (和風)시호도 “호무다”이다. 진무나 오오진이라는 중국식 명칭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원본에 기록된 명칭들이 아니라, 8세기 후반에 새삼 중국식(漢風)으로 만들어 부친 시호들이다.

쫄다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를 보자.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14대 왕이라고 하는) 추우아이까지의 왕위 승계 형식을 보면,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자간의 왕위 승계란, 7세기 후반 텐지 왕 이후에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었던 것이다. 오오진 이후 텐지 이전의 왕위 승계는 대부분 부자간이 아니라 형제간이었다.

이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쫄다는 오오진 이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하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2-9대와 13대 왕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기록다운 기록도 없다. 14대 왕이라는 추우아이편은, 거의 전부가 (가공의 존재인) 신공 왕후에 관련된

애기뿐이다. 쓰다 역시 오오진을 야마토 왕국의 시조로 보았다.

쓰다 교수는 일본 내에서 천황 중심 군국주의 사상이 한창일 때에 이런 학설을 주장 하다가, 1940년에는 주요 저서 4권의 발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1942년에는 황실의 존엄성을 모독한 죄로 3개월간의 금고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쓰다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야마토 왕조가 오오진(호무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상당수의 전후세대 일본 사학자들은, 애당초 6세기 전반에 편찬된 테이키(帝紀)라는 역사책의 원본에는, 오오진에서 케이타이 까지 12명의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일본 천황이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한 후, 1951년 9월에 미국 등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어 주권을 회복 할 때까지, 일본은 연합군 총사령부의 이름으로 주둔한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다. 맥아더 (MacArthur)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일본 정부가 제반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의 간접 통치 기간 중인 1949년, 쓰다는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수여 받았다.

나는 야마토 왕국이 오오진(호무다)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쓰다가 제시하는 근거에 추가해서) 세 가지 더 제시하려 한다.

첫 번째의 추가 근거를 제시한다. 쓰다는 오오진 이전의 왕위승계가 모두 부자간의 승계라는 특이점에 의혹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왕위승계가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오진 이후를 보자. 오오진에서 닌토쿠로 승계될 때, 한바탕 골육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닌토쿠에서 리츄우-한제이 형제로 승계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골육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한제이에서 닌교오로 승계될 때, 유혈극은 아니지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닌교오에서 안코오-유락쿠 형제로 승계되는 과정에서도, 또 한바탕 골육상쟁의 유혈극이 있었다. 유락쿠-세이네이 에서 켄조오-닌켄 형제로 승계될 때에도, 또 닌켄-부레츠 에서 케이타이로 승계될 때에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형제간의 왕위승계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왕위승계가 항상 순탄치 못했다는 점, 오오진 이후의 고사기-일본서기 기록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 준다.

두 번째의 추가 근거를 제시한다.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14대 왕이라는 추우아이 가 죽었다는 해로부터 15대 왕이라는 오오진의 즉위까지 장장 71년에 달하는 공백 기간을, 자타가 공인하는 가공의 존재인 신공 왕후가, 섭정을 하며 채우고 있다. 따라서 오오진(호무다)부터가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세 번째의 추가 근거를 제시한다. 712년에 고사기가 편찬 완료되자, 야마토 조정은 즉시 전국에 명을 내려, 각 지방의 현황과 옛부터 전해오는 온갖 이야기 등을 기록해 올리도록 했다. 이들 기록들은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를 편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들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하리마 풍토기는, 713-715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하리마 풍토기를 보면, 독자로 하여금 호무다가 야마토 왕국의 시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 예컨대, 호무다는 수없이 순행과 사냥을 하고, 수많은 지명들이 호무다의 사소한 언행들과 연관지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언급이 없다.

### (3) 일본 천황가의 근원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레드야드(Ledyard)에 의해 1975년에 수정된 기마민족설은, 에가미가 말하는 그 기마 정복자들의 근원에 대한 일차적인 구체화 작업이었다. 레드야드의 “수정판 기마민족설”에 의하면, 4세기 후반에, 만주 땅의 기마 민족인 부여 사람들이, 조국의 멸망의 슬픔을 뒤로하고 한반도를 쳐 내려오면서, 백제지역을 지나 곧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일본열도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고분 발굴물의 성격이 크게 바뀐다는 시기와해 시대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된다. <주1-1>

레드야드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서기 346년에 부여가 망하게 되었다는 기록과, 일본서기의 신공왕후 조에서 발견되는 (대략 350-380년 기간에 해당하는) 종잡을 수 없는 기록들이다. 레드야드 말대로, 만약 이 부여 사람들이 한반도를 종횡무진으로 쳐 내려오는 길에, 한국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 말 뒤에 묶어 끌고 일본열도에 건너와서, 산같이 큰 천황 묘들을 만드는데 부러먹었다면, 현대 일본 사람들의 기분도 아주 크게 상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애당초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천황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나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이다.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를 보면, 하타 씨족의 선조인 궁월군이, 오오진 16년[405년]에 120개 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또 오오진 20년 조는, 야마토 아야 씨족의 조상인 아찌 오미가, 17개 현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본에 건너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들 하타 와 야마토 아야 두 씨족은, 백제의 부

(部)제도를 본 따서, 야마토 조정의 재정출납 등 온갖 행정 기능을 맡아보게 되었고, 그 덕으로 야마토 왕실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815년에 완성된 신찬 성씨록에 의하면, 5세기 후반 유랴쿠 치세 때, 하타 씨족 사람 수가 (92개의 부를 구성하며) 총 18,670명에 달 했다고 한다.

일본서기 유랴쿠 7년[463년] 조를 보면, 안장을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비단을 짜는 사람 등이 그 해에 대거 “백제에서” 건너왔다. 이들 새로 도착한 기술자들을 오오진 때 이미 건너와 있던 (야마토 아야 씨족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새로 건너온 “이마끼” 아야(今來漢, 新漢)라 부르고, 기존 아야 씨족이 관할토록 했다.

동경대학 교수이었던 문화인류학자 이시다(石田 英一郎: 1903-68년)는, 야마토 왕국이 한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수립된 것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도 자유지만, 그렇게 되면 오오진 시대에 한반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온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Ishida, 1974 : 85).

일본서기를 읽어보면, 백제 왕실과 야마토 왕실이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일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예컨대, 야마토 궁중에는 백제 왕족 가운데 누군가가 거의 항상 체류를 하고 있었다.

백제 아신왕(392-405년)의 태자인 전지는, 397년부터 405년까지, 오오진과 함께 야마토에 살았다. 그는 405년에 부왕이 서거하자 백제로 돌아와, 그 뒤를 이어 전지왕(405-420년)이 되었다. 백제 전지왕은 자신의 누이동생 신제도를 야마토에 보내, 오오진을 모시게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오오진의 아들 다투쿠 치세 때의 기록을 보면, 백제 왕자 주군이 야마토 궁중에 와서, 매를 길들이고, 다투쿠와 함께 매사냥을 다니기도 했다. 백제 개로왕(455-475년) 때에는, 모니부인의 딸을 택해서 유랴쿠 왕에게 왕비 감으로 보내주었는데, 그녀가 부정한 짓을 해서 그만 화형을 당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개로왕은 자신의 동생 곤지를 야마토 조정에 보내 유랴쿠 왕을 돕게 했다. 479년에 백제 삼근왕(477-479년)이 죽자, 이 곤지의 둘째 아들이 백제로 돌아와서 동성왕(479- 501년)이 되었다. 일본서기는 유랴쿠가, 백제로 떠나는 곤지의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작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505년, 무녕왕은 왕족 사아군을 보내 야마토 조정에서 일을 돕도록 했다. 597년 4월, 백제 위덕왕은 아좌 왕자를 보냈다. 일본서기는,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631년에 건너 왔다고 기록했다.

야마토 지배씨족 1,182개의 조상을 기록하고 있는 신찬성씨록을 보면, 마히또(眞人)가 황족 중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수도지역의 마히또 씨족들을 제1권 첫머리에 수록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록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든 마히또 씨족을 백제 왕족의 후손으로 간주 할 수 있다. (5장 2절 참조)

660년, 백제의 수도가 나당 연합군에게 함락된 후, 왜에서 돌아온 왕자 여풍장은 복신과 함께 주유성에서 항전을 계속했다. 당시 사이메이(655-661년) 여왕과 태자 텐지(662-671년)는, 큐우슈우까지 나와서, 백제 구원 작전을 진두 지휘 했다. 663년, 야마토 조정은 구원병 만 여명을 보냈는데, 이들 왜군은 백촌강 전투에서 궤멸되었고, 주유성은 당군에게 함락되었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서로들 다음과 같이 말을 주고받았다: 주유가 함락 됐구나.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오늘로서 백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곳을, 어찌 다시 찾아 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양서(梁書) 백제전은, 백제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고 기록 했다(今言語服章 略與高麗同). 서울 대학교 이기문 교수에 의하면(1972: 34-35), 고구려어와 고대 일본어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 어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구려어의 수사(數詞)로서 3의 밀(密), 5의 옷(于次), 7의 나년(難隱), 10의 덕(德)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고대 일본어의 미(三), 이츠(五), 나나(七), 터워(十) 등과 유사하다. 고구려어는 분명한 알타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알타이 언어들 사이에 수사의 일치는 매우 드문 사실인데, 유독 고구려어와 일본어 사이에 이처럼 많은 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이 두 언어의 분리 년대가 그다지 오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이기문, 1972: 35-36).” 고구려-백제어는 알타이 계통의 언어로서 고대 일본어와는 각별한 친족관계에 있었다. 즉 백제어와 고대 일본어의 분리 년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주1-2>

내가 주장하는 학설은, 4세기 후반에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야마토 왕국을 세웠고, 천황족의 근원은 백제 왕족이라는 것이다.

## 1장 주

<주1-1> 에가미는 미마키를 4세기 초의 인물로 보기 때문에, 기마민족의 일본열도 정복 시기를, 발굴된 고분 내용물들의 성격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대략 375년 경을 전후로 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반세기 이상 소급해야 한다. 만일 에가미의 “미마키”설이 옳다면, 말과 관련된 후기 고분시대의 유물들이 4세기 초에는, 적어도 최초로 침공이 시작된 장소라는 큐우슈우 땅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레드야드는, 부여족이 369년 경에 한반도의 남부를 점령하고 난 후, 4세기 말 경에 일본열도의 야마토 지역을 정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레드야드는, 고고학적 물증에 입각해서 추정하는 정복시기(즉 4세기 말)와 그 기간에 해당된다고 믿어지는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결합시킴으로서, 에가미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제거하려 했다. 즉, 고고학적 *missing link*의 부담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Ledyard, 1975)

<주1-2> 이기문(1972: 32-33)에 의하면, 고구려어는 현존 자료를 가진 유일한 부여계 언어다.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卷37)에는 고구려의 지명들이 한자의 음(音讀)과 뜻(釋讀)으로 함께 기록 되어있다. 예컨대 “買忽一云水城”에서 “水”라는 한자의 뜻이 “買”라는 음으로, “水谷城縣 一云買忽”에서 “谷”이라는 한자의 뜻이 “브”이라는 음으로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에서는 “買”가 mai 혹은 mie로, “브”이 tan 혹은 tuan으로 읽혔다.

고구려어의 미에(水), 탄(谷), 이(入), 누아(土), 우사함(兔), 나머르(鉛) 등은 고대 일본어의 “미두,” “타니,” “이르,” “나(地),” “우사기,” “나마리” 등과 각각 유사하다. 백제어의 코마(熊), 키(城) 등은 고대 일본어의 “쿠마,” “키” 등과 각각 유사하다. 이기문 교수는 부여-고구려어는 신라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도 직접적이며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백제어는 신라어와 매우 가까웠다 한다. (이기문, 1972: 32-39)

양서(梁書)는, 백제어가 고구려어와 같다고 말할 뿐 아니라, 백제가 왜와 가깝기 때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을 했다(其國近倭 頗有文身者). 여기서 가깝다(近)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결국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부여-고구려-백제 언어가 신라어와 친족관계 일뿐 아니라 고대 일본어와도 아주 가까운 친족관계라는 것이다.

